안철수 서울-광주-봉하 '광폭 행보'

박정희 묘역 참배 보수층 공략
호남 찾아 텃밭 민심 잡기
봉하 권양숙여사 예방땐
시민 항의 시위에 '곤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1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려고 하자 한 시민이 안 의원과 한 위원장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12일까지 1박2일 동안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광폭 행보'를 했다.

전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도 및 개혁적 보수층을 공략한 데 이어 호남을 찾아 야권 텃밭 민심 잡기에 매진한 안 의원은 12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전날 광주와 순천 일정을 마치고 순천의 처가에서 1박을 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해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문병호·임내현 의원이 함께했다. 친노(친노무현) 지지층까지 끌어안겠다는 통합행보로 해석됐다.

하지만, 참배 전부터 일부 친노 성향 시민들의 항의시위에 맞닥뜨리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앞날이 예고됐다.

몇몇 시민들은 안 의원이 도착하기 전부터 봉하마을 앞에서 "친노 패권주의, 낡은 진보라며? 아직도 간 덜 봤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안 의원이 도착하자 "아직 간 덜 봤냐", "야권 분열시켜놓고 형제 좋아하네. 형제는 무슨 형제"라고 야유를 보냈다.

권 여사 측 관계자가 상황을 정리한 뒤 시작된 참배에서 한 위원장과 안 의원, 문·임 의원이 차례로 분향했고,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너럭바위에서 다 함께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한 위원장이 방명록에 "대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안 의원이 한 위원장 이름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적었다.

안 의원 일행은 이후 새해 인사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사저를 찾아 권 여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가 따뜻하게 차도 주시고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여러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탄을 끝내려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간층 유권자, 침묵하는 다수를 확실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 있어야만 더민주와 동지로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 국민의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과정에서 혹시 권 여사가 뭔가 좀 허전하고 서운한 점이 있을까봐 몹시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권 여사는 현재 정부가 너무 뒤로 간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거듭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친노계와의 갈등에도 봉하마을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제가 특정세력을 비판한 적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지 계속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권 여사 측 김경수 더민주 경남도당위원장은 "정파를 떠나 멀리서 찾아준 분들께 감사 드리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신당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마지막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지난해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 때였다. 당시 안 의원은 문 대표의 혁신위원장직 제안을 거절한 직후로, 일부 친노 성향 시민들로부터 욕설과 야유를 들었다. 안 의원은 이날 참배에서도 일부 시민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내내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새 인물·새 비전으로 위기 돌파"…文 쇄신 행보

양향자 화순출신 삼성전자 상무 영입…다음주 선대위 출범

'더민주' 탈당 국면 돌파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연쇄 탈당 국면 타개를 위해 어떤 수습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단, 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는 탈당의 흐름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외부인사 영입과 조기 선대위 구성의 투 트랙을 통해 당을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12일 권노갑 상임고문의 탈당과 관련,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당의 움직임들은 무척 아프다"면서도 "지금 새로운 영입, 10만명에 가까운 온라인 입당자들은 당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시작으로 이날 화순출신인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에 이르기까지의 외부인사 영입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쇄 탈당의 빈자리에 운동권이나 시민사회단체 인물보다는 민생과 생활정치의 상징적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 당내 주류 세력의 생각이다.

하지만, 거물급 명망가 영입에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문 대표는 정운찬 전 총리, 정동영 전 의원 등과 직간접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적 국면을 전환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의 2선 퇴진 등 분당 국면을 수습할 조기 선대위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내에서는 다시 지도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류 측에서는 탈당 사태로 인해 사실상 선대위 구성이 필요없게 됐다며 문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문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주류 진영에서 탈당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 선대위를 꾸려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문 대표가 선대위 구성에 대한 마지막 구상을 가다듬고 시기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4·13 총선 현장

황주홍 출판기념회…"지역민이 유일한 힘"

무소속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13일 오후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저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황 의원은 지난 4년간 자신의 초선일지에 실었던 글을 다듬어 책으로 펴냈다. 황 의원은 이 책에서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 그래서 정치가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에 거침없이 쓴 소리를 던졌다.

황 의원은 "줄서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기에 서울의 어떤 유력자도 모시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저의 유일한 '빽'인 지역민들께서 메워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힌 뒤 "저의 소신과 비전을 지역민들과 정직하게 나누고, 소중한 조언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

정진욱 전 '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대변인이 12일 광주 남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의당으로 출마할 계획인 그는 이날 "남구민 10만명을 만나는 대장정 프로젝트에 돌입, 남구의 경제발전과 민생정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성장전략을 펼쳐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신인들은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됐지만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 정권교체와 정치혁신, 사회적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참여를 위해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진정치인 13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날 배석한 문병호 의원은 "이들 신진정치인의 영입은 향후 인재 영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정성 '나눔 이야기' 출판기념회 성료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장은 12일 오후7시 조선대 서석홀에서 '서정성의 나눔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동철·임내현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김점기 광주 남구의회 의장, 서재홍 조선대학교 총장, 정연호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민남기 남구기독교 교단협의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추천사를 통해 "국민이 열망하는 변화와 혁신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국민을 살리는 새정치 실현에 소중한 동지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서 회장은 앞서 지난 11일 4·13총선 광주 남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환, 서영대서 '리더와 인문학' 강의

최경환 광주시 북구 을 예비후보는 12일 서영대에서 '리더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직무교육 강의를 했다.

그는 이날 강의에서 "개인과 사회의 인문적 성찰 없이는 시민의 행복을 키우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민족은 문화 민족으로, 인문숭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한류국가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엔) 인문학적 식견과 감성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를 갖춘 지도자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으며 고인의 독서법·감성 키우기·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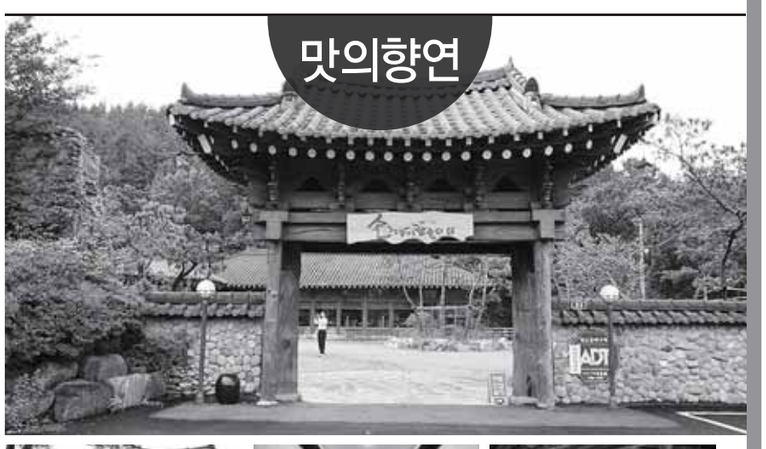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